

[보도자료] 쿠팡, 경상남도과 MOU 체결 우수 농·특산물 발굴해 지원 나선다

2022. 12. 14.

- 경남의 우수한 농·특산물 발굴해 판로와 마케팅 지원하기로 협약
- 상생 전문관 '착한상점'서 경남 소재 중소기업인 상생기획전 예고



[사진 설명] 쿠팡과 경상남도가 업무협약을 맺고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에 나선다. (사진 왼쪽부터 장영철 쿠팡 전무, 박대준 쿠팡 대표, 박완수 경남도지사, 정연상 경남도청 농정국장)

2022. 12. 14. 서울 - 쿠팡이 경상남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소재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온라인 판매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14일 경남 창원특례시 경남도청에서 쿠팡 신사업 부문 박대준 대표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경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 등 판매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쿠팡은 경남 농·특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인 상생 전문관인 '착한상점'을 통해 경남 소재의 농·특산물 중소기업인을 위한 상생기획전을 개최한다. 특히 경남에서 추진하는 '경남도청 추천상품(Quality Certificate, QC)'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농가와 소상공인 상품의 매출향상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어야 농가소득이 높아진다"며 "농업도 온라인 중심 직거래로 유통경로를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쿠팡과의 업무협약이 단순한 협약을 넘어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소득증대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쿠팡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박대준 쿠팡 대표(왼쪽)와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이 경남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경남과 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어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지역과 협력해 중소기업인과 상생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올해 8월 쿠팡 앱 내 ‘착한상점’을 오픈했다. ‘착한상점’은 마케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쿠팡이 중소기업인과 진행한 상생 기획전들이 포괄적 개념의 ‘기획전’ 하위 카테고리에 배치되던 것과 다르게 ‘착한상점’은 별도의 상위 판매 페이지로 개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전국 중소기업인이 경쟁력 있는 자사 상품을 쿠팡 고객에게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